



코로나19가 바꾼 본관의 풍경이다. 지난 2019학년도(좌측)와 비교했을 때 올해 3월(우측) 본관 앞은 텅비어있다.



(사진=김가연·김지원 기자)

강의실 수업 시기, 상황따라 유동적 새 화상강의 시스템, 30일부터

(ZOOM)

장보경 기자 jbg9687@khu.ac.kr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일과 종강일, 학위수여식 등의 학사 일정이 연기됐다. 양 캠퍼스 중앙도서관과 박물관도 별도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 휴관할 예정이다.

우리학교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부득이 비대면 강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의실 수업은 내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당초 우리학교는 지난 2월 28일 개강을 2주 연기하고, 개강 후 2주분을 비대면 강의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향후 추이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다. 실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1학기 강의를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했거나, 논의 중인 학교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UNIST는 1학기 강의를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으며, KAIST의 경우 지난 13일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 수업을 기

대면 강의 시작일, 학위수여식 등 학사일정 연기
학사지원과 “앞으로 상황에 맞게 일정 조율할 것”
“급박한 상황 변화로 장기적 계획 수립 어려워”

한 없이 연장하기로 했다. 내달 6일 강의실 수업이 예정됐던 성균관대학교는 지난 24일 총장 공지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 강의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서울캠) 교무처 학사지원팀 권은정 팀장은 “1학기 전면 비대면 강의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 상황에서 장기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다”며 “앞으로의 상황에 맞게 일정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종강일은 개강 연기에 따라 1주 연기된 6월 26일이다. 하지만 권 팀장은 “대면 강의가 필요한 실험·실습 과목에 대해서 종강 이후 또는 학기 중 주말에 보충 강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캠퍼스(국제캠) 교무처 학사지원

팀 또한 “온라인 강의 기간을 연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수업이 추가 연장되면서 이번 학기 휴학 신청기간 또한 연장됐다. 지난 27일까지였던 기존 계획에서 1주 연기된 오는 3일까지 휴학 신청을 받는다.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 기간은 1주씩 연기돼 각각 4월 27일과 6월 22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201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역시 교육부 지침에 따라 현재 미시행 상태다. 일반대학원 행정실 측은 “201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대학 방침에 따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면으로 이어짐

서울캠 총학, ‘등책위 개회’ 놓고 대학본부와 갈등

김창호 기자 k.c_hoxx@khu.ac.kr

지난 26일 서울캠퍼스(서울캠) 제52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가 ‘경희대학교 등록금 재논의를 위한 등록금책정위원회(등책위) 개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본관 총장실 항의 방문과 릴레이 피케팅에 이은 세 번째 행보다. 이에 등책위 개회 여부를 놓고 대학 본부와 서울캠 총학생회(총학)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서울캠 총학 정경원(회계체계무 2016) 부회장은 “책임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대학본부를 규탄하고 등책위 개회를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대학 교육에 대한 회의감과 상실감’,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각 단과대 단체장들과 재학생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기자회견은 정 부회장, 호텔관광대학 정준교(호텔경영학 2018) 회장, 신입생 빙유원(자율전공학 2020) 씨, 미술대학 이소미(회화 2018) 회장, 의과대학 이의주(의학 2017) 회장, 문과대학 남우석(철학 2018) 부회장, 서울캠 총학 최인성(생물학 2016) 회장의 발언에 이어 단체 기자

회견문 낭독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자회견 중간중간 “등책위를 개회하라”는 학생들의 구호가 본관에 울려 퍼지기도 했다. 앞서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학사 일정에 변동이 생기고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많은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이에 서울캠 총학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비대면 수업에 따른 등록금 재논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총 2873명 중 94.3%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3면으로 이어짐

한균태 제16대 총장 취임 구성원 참여한 민주적 과정의 결과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지난 2월 14일 한균태 신임 총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2019년 치러진 총장 선임 과정의 결과다.



경희대학교 제 16대 총장을 뽑기 위한 ‘총장 선출 프로세스’는 2019년 10월 4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가 구성되면서 시작됐다. 총추위가 추천과 공모에 의해 지원한 후보를 검토하고 구성원 단체에 통보해 추천 의뢰 후 구성원 단체별 추천 후보 3인(교수 단체 2인, 직원/학생단체 1인)을 이사회에 보고, 법인이 최종적으로 3인 중 1명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장후보 추천을 위한 구성원 투표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 간 이뤄졌다. 투표 결과는 14일 열린 6

차 총추위 회의에서 개표됐고, 총추위는 최종 3인의 후보를 추려 법인에 추천했다. 지침에 따라 최종 3인의 추천 순서는 비공개로 전달됐다.

한균태 후보가 최종 임명된 것은 2019년 12월 26일 제5차 이사회가 열린 날이었다. 경희 사상 최초로 구성

원 손으로 추천한 총장이 임명된 순간이었다. 한 총장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이사회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총장 선임 과정에 구성원 목소리가 반영된 최초의 ‘민주적 총장선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 총장선출에 대한 목소리가 처음 제기된 시점에서 약 10여 년이 흐르고서야 얻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총장 선출제 논의가 결실을 맺은 2019년만 돌아보아도 범경희대책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공식적인 회의체 지위를 두고 갈등을 겪고, 구성원 단체별 투표비율을 두고도 첨예한 논쟁을 거듭했다. 그럼에도 구성원 대표들은 총장 임명 직후 ‘축제’라며 입을 모았다. 수많은 갈등을 딛고 결실을 맺은 것에 기뻐하기도, 민주적 총장 선출의 기반을 다지는 첫 걸음이기를 희망하기도 했다.

한편, 한 총장은 우리신문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열린 소통을 통해 구성원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 계획”이라며 “재정 안정성과 위상 제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관련 인터뷰 8면

지면안내

코로나19 대응일지, “많은 가능성 열어두고 만반의 준비”

▶ 4면

“실기실 못쓰니 수업도 안 돼”…난관에 부딪친 비대면 수면

▶ 5면

알림

사령

면
〈편집장〉 이후승(한국어학 2017)
〈국제뉴스팀장〉 이서림(한국어학 2017)

명
〈편집장〉 김지원(국어국문학 2018)
〈국제뉴스팀장〉 문하령(한국어학 2017)

시선

사설

대학가 덮친 코로나 위기, 정부가 지원 나설 때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다. 지난 26일 서울캠퍼스

들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중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해당 갈등의 소관이 대학에 있다며 선긋기에 급한 모양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기 대응은 정부의 주된 역할 중 하나다. 대학가로 번지는 코로나 위기에 정부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의 비대면 수업 권고는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적 의제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국가적 사태를 빚은 코로나19로 인한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등록금 반환 갈등은 이제 겨우 시작일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싹튼 수많은 갈등이 대학가에서 머리를 내밀려 하고 있다. 학생 교육의 질적 하락, 대학의 재정 부담, 비정규직 임금 축소 등은 마치 나비효과처럼 또 다른 사회적 재난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현재 대학가는 재정 지원 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역량이 절실히다. 사회 대부분의 이슈는 결국 재정 문제와 직결된다. 대학가의 현 갈등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견,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 정책과 같은 형태도 좋을 것이다. 대학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등록금 감면분을 직접 충당해달라는 목소리도 고려해볼 법하다. 위기에 빠진 대학가를 구할 정부의 손길을 기대해 본다.

하지만 대학도 곤혹스럽다. 개강을 2주 연기하고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까지, 모든 것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오랜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 위기도 겹쳤다. 코로나 사태로 유학생 수가 줄면서 재정은 한층 더 악화됐다. 비대면 수업 마련, 시설 방역, 추가 인건비 등 예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재난 수준인 코로나19의 거센 풍파에 대학도 휩쓸려 갈 형국이다.

상황이 이런데 단순히 소통만으로 이번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란 어렵다. 코로나19 사태는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터져 급속도로 번져나갔다. 이에 대학은 비대면 수업 체제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벌지 못했다.

영성할 수밖에 없는 온라인 강의 앞에서 학생들의 불만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재정 상황과 아울러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대학이 학생

만평 - 코로나19, 이해와 배려 그리고 존중이 답



두 개의 독, 해독제는 '끝까지'

세시봉



김지원 (편집장)

사회를 좀먹는 독(tox)이 두 가지씩이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최근 신문지면을 훑쓸고 있는 '코로나19'와 'n번방 사건'이 그것이다. 이 둘을 주제로 세시봉원고를 준비하던 중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다른 두 사안에 실은 같은 해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끝까지' 쫓아 그 모두에 존재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뿐리째 뺏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다.

이질적인 두 이슈의 동질성은 바이러스의 특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바이러스는 무생물체와 생물체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중에서도 단독으로 증식하지 못하고, 돌연변이의 출현이 잦다는 점은 각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바이러스는 숙주 감염 이후에만 증식할 수 있어 감염 이전 상태에서는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또 돌연변이 발생이 잦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선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바이러스는 혼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감염과 확산을 통해 힘을 발휘하며, 시시각각 변화함으로써 숙주에 지속적인 공격을 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코

로나19와 관련한 상황은 그래도 희망적이다.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니 상황은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실제로 희생에 가까운 헌신을 보여주는 의료계 종사자들 덕분이다. 행정과 현장의 조화가 곧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능케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를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인 n번방 사건의 상황은 다르다. 이러한 종류의 범죄는 감염자 즉, 이용

‘ 혼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감염과 확산을 통해 힘을 발휘하며 시시각각 변화함으로써 숙주에 지속적인 공격을 가한다 ’

자를 통해 힘을 발휘하고 무차별적으로 자기 복제를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아야만 종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분체가 사라진지 오래인 이 사회에서 피해자를 '노예'라고 칭하는 성 착취 동영상을 두고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은 더러 그럴 수 있다"는 몇몇 국회의원의 가벼운 답변은 마음에 밝힌다.

국회를 일반화하고자 하는 것은 아

니다. 입법 현장 속에 국민의 분노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사건이 주는 충격과 분노가 큰 만큼 행정과 현장의 부조화가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운영자뿐 아니라 회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의 언급에도 기대보단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라틴어로 바이러스는 '독(poison)'이라는 뜻을 가진다. 그 말을 증명하듯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감염자는 50만 명, 사망자는 2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과연 재난 수준의 감염률을 가진 바이러스로 전 세계를 빠르게 잠식해나가고 있다. 디지털 사이버 범죄로서 사회적 바이러스라 칭할 만한 n번방 사건의 가입자는 최대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되는 계정을 고려해도 1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말이 나돈다. 이 역시 의명의 그늘 아래서 사회가 나아간 자리를 반의반 보씩, 한 보씩 잠식해왔으리라. 정작 자신들은 존중할 줄 몰랐던 인간 존엄과 그 위에 쏙은 인권으로, 다시금 모양을 바꾼 돌연변이가 되어, 최근 이 두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 때로는 분노와 슬픔, 또 어떤 순간에는 무력함 속에 놓는다는 사실을 안다. 그럼에도 부디 '끝까지' 쫓아 두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다음 맞이하는 봄은 마냥 따듯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최재수첩



박창원 기자

macpark342@khu.ac.kr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쿠퍼가 황폐화된 지구를 대신할 행성을 찾아 미지의 우주로 떠나기 전 브랜드에게 전한 대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행성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경험해본 적 없던 상황에서 답을 찾기 위해 등장인물 간 이해관계는 더 강하게 충돌했다.

27일 기준 한국에서만 9천여 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망자는 139명에 달했다. 세계적으로는 51만여 명이 감염됐고 2만 3천여 명이 사망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1일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공포 속에 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학교도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개강과 비대면 수업이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됐고 종강 역시 1주일 가량 미뤄졌다.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두 달여 동안 결정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더 이상 학사일정

변동이 없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조차 코로나19의 안정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며 우리학교 역시 안갯속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새 학기', '신입생' 등 설렘으로만 여겼던 단어들이 새삼 다르게 느껴지는 봄이다. 처음 코로나19와 관련한 취재를 시작했을 때의 나 역시 그랬다. 처음 맞는 것은 낯설고, 낯선 환경은 모두를 예민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꼭 지금, 우리가 맞는 봄처럼 말이다. 기자이면서도 어쨌든 학생이기에 변동되는 학사일정을 보며 '개강이 연기되면 종강도 연기가 되는 것인가?', '비대면 수업은 잘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학생으로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원망하기도 했다.

취재를 지속하며 이는 비단 나 혼자만의 예민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계속되는 혼란 속에서 학생은 물론 교원과 직원 모두 신경이 곤두선 듯 보였다. 학생은 거듭되는 학사일정 변동과 낯선 비대면 수업에 불안과 불만을 토로했다. 교원 역시 빗발치는 학생 메일과 낯선 비대면 수업 플랫폼 적응에 애먹고 있었다. 직원들은 끊임없는 문의와 항의,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업무에 시달리는 중이었다.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제자리를 지키려 애썼으나 모두가 예민했기에 서로의 태도를 아쉬워하는 모습이었다. 학생에서 한 발 물러나 모두의 속사정을 들은 기자로서 바라보자니 더없이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앞서 이야기했듯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우주비행사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주를 떠돌기 시작한다. 그러나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주에서 그들은 각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직면한 문제의 해답에 다다른다. 그들이 마주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열쇠는 결코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었다. 각자의 노력을 연결했던 이해와 배려, 그리고 존중이 그것이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도 불만과 원망보다는 우주비행사의 열쇠로 답을 찾을 수 있다. 경희 구성원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다. 학생은 학업에, 교원은 수업에 임했고 직원은 그들을 지원하고자 애쓰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 모든 노력을 연결할 이해와 배려, 그리고 존중이 더욱 필요하다. 모두에게 낯설고 불편한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모두의 노력이 단단히 연결될 수 있다면 이 안갯속에서도 기자는 확인할 것이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라고.

1면 '학사일정'에서 이어짐

또한 "후기 학위수여식과 함께 진행할 경우 전기 학위수여식 수상 대상자를 포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휴관 중인 양캠 도서관, 이용자 불편 해소 위해 도서 대출 서비스 실시

코로나19로 인한 건물 출입 통제 강화 방침에 따라 서울캠 중앙도서관과 법학도서관, 의학계열도서관, 한의학도서관은 지난달 28일부터 휴관 중에 있다. 도서관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도서 반납은 중앙도서관 주 출입구에 설치돼 있는 무인 반납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제캠 중앙도서관과 공학도서관, 후마니타스도서관도 휴관에 들어갔다.

서울캠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김민정 직원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으로선 내달 12일까지 휴관할 것"이라며 "오는 13일에 다시 개관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지만 추후 변경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제캠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안수찬 차장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강의실 수업 시작일이 연기된 만큼 도서관도 다음달 13일에 맞춰서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지 않아 강의실 수업 시작일이 또 다시 연기된다면 도서관 개관일도 같이 연기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 캠퍼스 중앙도서관은 휴관에 따른 이용자의 자료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개강에 따른 연구·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서 대출 예약서비스를 실시한다. 도서를 대출하려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신청을 하고, 다음날 서울캠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국제캠의 경우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 사이 예약 신청을 하면 당일 오후 4시에도 배부 받을 수 있다.

강의실 수업 시작일이 연기되면서

기술사 입사일도 미뤄졌다. 서울캠 행복기술사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2주 추가 연장되면서 입사 수속을 내달 10일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삼의원과 세화원 기숙사 또한 정기 입사일을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국제캠 우정원과 제2기숙사 역시 정기 입사 기간을 오는 9일에서 12일 까지로 변경했다. 기준 날짜에서 2주 연기된 기간이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

한근태 총장은 학사 일정 연기와 비대면 수업 시행 등 교육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학내 구성원들에게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또한 "수업의 질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된 학생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특히 학생들에겐 "새로운 학습환경이지만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자가 돼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데도 최선을 다하시는 직원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강의 시행에 대해서는 "질 높고 안정적인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다음주 비대면 수업 운영 신규 플랫폼(LMS)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가피한 외부 요인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지만 등교 연기와 비대면 강의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30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비대면 수업 운영 신규 플랫폼(LMS)는 동시에 학생 2,000명이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e-campus와 연동해 실시간 화상강의 시스템(ZOOM)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① 지난 20일, 제52대 서울캠 중앙운영위원회가 '등록금책정위원회 개회'를 요구하며 본관을 항의 방문했다. ② 23일을 시작으로 학교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릴레이 피케팅이 매일 점심마다 이어졌다. ③ 26일 열린 '등록금책정위원회 개회 축구 기자회견'에서 서울캠퍼스 총학 최인성(생물학 2016) 회장이 등록금 재논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1면 '등책위'에서 이어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중운위는 지난 17일 "대학본부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재논의에 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대학본부에 20일 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변동된 교육 환경에 따라 '등책위 개회', '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 '등록금 재논의'를 요구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환경이 변동돼 하루 빨리 등록금에 대해 재논의를 해나가야 할 시점에서 대학본부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부총장 선임 이후로 등책위 개회를 미루는 상황"이라며 "지난 20일 '등책위 개회' 촉구를 위해 중운위 위원들과 함께 본관 총장실을 방문한 이후 23일부터 매일 릴레이 피케팅을 진행했지만 역시나 대학본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해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학생지원센터 송기휴 행정과장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 대책 회의들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사항에 있어 빨 빠르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 "등책위가 아닌 다른 소통 회의체를 구성해 언제든 관련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는 답변을 종학에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와 관련해선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외국인 지원팀장, 학생지원센터장, 예산팀장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소통 회의체를 만들어 등록금과 관련한 논의를 하자는 본부의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등책위만큼의 정체성과 무게감이 없고, 합의를 실현해야 할 의무감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식 회의체인 등책위를 통해서만 진지한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캠 종학 측은 "등책위가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 사안을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총장 공약이었던 '진정한 소통'을 이루기 위한 학생들의 의지는 충분하다"며 "대학본부로부터 하루빨리 책임 있는 답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 학생 모금 활동, "모든 학우들이 함께 이뤄낸 결과"

총 3회간 2,500명 넘게 모여 8곳에 나눠 4,500만 원 기부 "코로나19 사태 얼른 회복되길"

김가연 기자 rkdus0617@khu.ac.kr

지난달 26일 우리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힘쓰는 이들을 돋기 위한 모금 활동을 벌였다. 모금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모금 기간 동안 2,500명이 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수진, 졸업생 등문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서 모인 4,700여만 원은 대학병원과 구호단체 등에 전달됐다.

1차 모금에서 모인 1백만 원은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으로 전달됐고, 2차 모금액은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회와 대학적십자사에 각각 1천만 원씩 전달됐다. 지난 4일 마무리된 3차 모금 이후에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기관에 각각 1천만 원을, 영남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에는 570여만 원을 나눠 기부했다. 대부분의 기부 장소는 학생 투표로 결정됐고 '경희대학교 학생 일동' 이름으로 기부가 이뤄졌다.

모금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진행됐다. 학생들은 오픈채팅방에 공지된 계좌로 최소 금액 5천 원 이상을 후원했고, 주최자들은 채팅방에 익명 처리된 기부자 명단과 거래 내역을 하루 2번씩 정기적으로 공지했다. 모금 활동 홍보는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와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모금 활동의 제안자는 박민희(국어국문학 2018), 송유빈(언론정보학 2018), 문수현(경영학 2018) 씨이며, 조근영(중국어학 2018) 씨가 국제캠퍼스 흥보를 도왔다. 주최자들은 "전례 없는 모금 활동을 믿고 지지해 준 모든 분께 정말 감사하다"며 "원활한 모금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우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씨는 "개인 SNS나 블로그 등으로 홍보해 주신 분들이 많아 모금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씨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대학 차원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활동을 시작했다"며 모금 활동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첫 목표액은 5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실 줄 몰랐

고 규모가 커져서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되기도 했다"며 "주변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활동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제안자들은 "각 기부처로부터 대표로 감사 인사를 받았고 이 모든 것이 자랑스러운 경희 학우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모금 활동 참여자들에게 재차 감사의 말을 전했다.

모금에 참여한 이재영(문화관광콘텐츠학 2018) 씨는 "늘어나는 확진자와 사망자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와중에 좋은 취지의 모금 활동이 시작된다는 것을 듣고 바로 동참했다"며 "따뜻한 관심과 용기로 모금에 참여한 모든 학우 분들이 대단하고 같은 동문으로서 자랑스러우며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회복되길 바란다"

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학생 주도 모금 활동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에서도 진행됐다. 연세대와 고려대가 함께 진행한 '고려X연세 COVID-19 모금 운동'에선 총 930만 9,229원이 모였고 이는 대구 가톨릭대병원과 경북대병원에 현금으로 전달됐다(고대신문/코로나 극복 위해 고려X연세 COVID-19 모금 운동, 2020.03.1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려대학교 학우 기부금 조성 TF'에서 모인 2,242만 3,245원 중 2,100만 원 상당은 경북대 병원과 대구의료원에 기탁됐고 남은 금액은 의료진에게 필요한 일회용 비닐 가운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기로 결정됐다(고대신문/코로나 극복 위해 고려X연세 COVID-19 모금 운동, 2020.03.15).

코로나19 위기

코로나19 대책반, “많은 가능성 열어두고 만반의 준비”

박혜림 기자 apricot12@knu.ac.kr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학 개강 연기를 권장했다. 개강 후 학생들이 밀집해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었다. 학교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개교 아래 최초 개강 연기를 실시했고 이후 비대면 강의 진행, 유학생 격리 등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학교 측의 코로나19 대책반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을 짚어봤다.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게 된 시기는 1월 말이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전국 대학교에 개강 연기를 권유했다. 우리학교는 지난 1월 31일 서울 소재 대학 중 가장 빨리 개강 연기를 발표했다. 당시 안내문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해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며 “사회적으로 격정과 불안이 커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약속된 개강일이 다가온에도 코로나19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 2월 7일에 발표된 두 번째 개강 연기는 교육부의 요청과 전반적인 국가 상황으로 인해 의견 충돌 없이 결정됐다. 이어 수원시와 용인시, 동대문구 일대 등 학교 주변에서 확진자가 나오며 2월 28일 수강 신청 및 정과 대면 강의, 시험, 강의 평가 등 일정이 모두 1주 혹은 2주 후로 연기됐다. 종강이 1주 미뤄진 것에 대해 학생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이에 대해 백운식 국제 부총장은 “학생들이 우려하는 인턴이나 교환학생, 입대 등은 국가적 재난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판단했

다”며 “교육부가 규정한 최소 수업일 수가 15주인데 보강 수업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1주를 연기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10일에는 등교일 추가 연기가 발표됐다. 개강은 예정대로 진행해도, 온라인 강의를 통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의 등교를 늦추는 방식이었다. 당초 대학 측은 전문가들과 의료팀들의 의견을 따라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대폭 감소하면 대면 강의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서울캠퍼스 한의대 석사과정 졸업생 중 확진자가 나오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이후 4일간의 한의대 건물 전면 폐쇄 및 방역 계획을 발표하며 등교일 연기를 함께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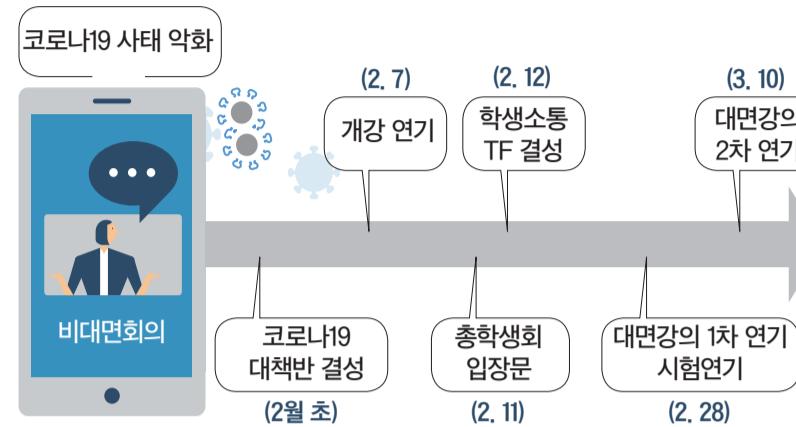
코로나19 대책반 신설해 의사결정

우리학교는 코로나19에 대비하고자 2월 초부터 ‘코로나19 대책반’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 부총장이 주재하는 코로나19 대책반 회의는 부총장, 기조처장, 교무처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국제교류처장, 외국인지원팀장, 총무팀장, 행정실장 등이 참여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구글 Meet 화상채팅 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2월 초 개강 연기가 결정된 것 또한 코로나19 대책반을 통한 의사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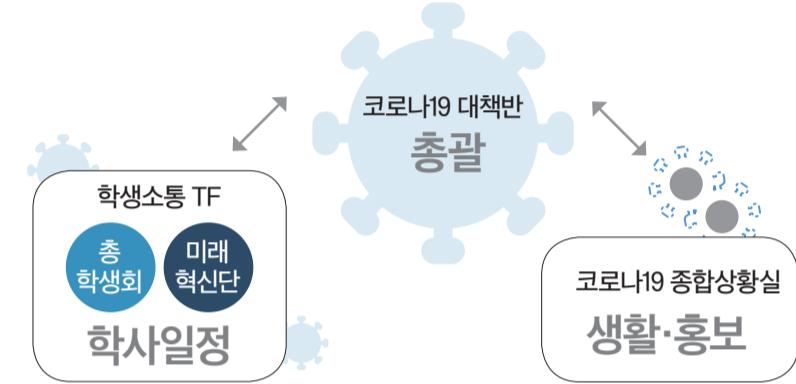
회의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현시점에서도 특정한 시간이나 요일을 두지 않고 상시로 개최된다. 각 캠퍼스의 부총장들이 총괄하는 이 회의는 매일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국제 캠퍼스 통합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된다.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들은 각각의 단과대와 구성원들에게 승인을 받고, 총장실 산하에 구성된 ‘코로나19 대책 종합상황실’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된다.

서울 부총장실 백성선 실장은 대책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과정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책반 의사결정 구조



“

학사 관련 사항은

총학, 미래혁신단과 함께
별도로 학생 소통 TF를 구성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

“

해서도 학장님들과 소통 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백 부총장은 비교적 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 비대면 강의에 아쉬움을 표하며 “대면 강의가 진정한 대학 수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대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서울캠 총학, 학생 참여 보장 요구

한편, 서울캠 총학생회는 대책반 회의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월 11일 서울캠 총학생회 측은 “학내 안전과 학사 대책에 대해 학생들과 논의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대책반 회의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학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2월 12일 학교 측은 “코로나19 대책반 회의에서는 유학생 입국 관련 문제, 격리 사항 등의 국가적 내용을 더 많이 다루기 때문에 총학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대신 학사 관련 사항은 총학, 미래혁신단과 함께 별도로 학생 소통 TF를 구성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양 캠퍼스 학생회는 학교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현재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캠 총학생회 최인성 회장은 “부총장 주재 TF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충분히 소통되고 있다”며 “현재 학사교육, 안전대책 문제, 건의 등 학생과 관련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 TF와 관련해 미래혁신단 학생지원센터는 “초반에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모여 회의했지만, 비대면 강의 이후에는 이에 집중하려고 잠시 멈췄다”며 “회의가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모여서 진행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강의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KCDC국내외 감염증 예방
NOW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발행일: 2020. 2. 25



“실기실 못쓰니 수업도 안 돼”…난관 부딪친 비대면 수업

출석, 교강사 숙련도 등
온라인 강의 문제점 지적

박창원 기자 macpark342@knu.ac.kr
이지민 기자 delicado@knu.ac.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진행한 비대면 수업 현장에서 불
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론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공
통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수업 진행을
지적했다. 외국어대학 소속 A씨는 “출
석을 부르는 데만 30분 이상 소요됐
다”며 “비대면으로 진행해 수업 통제
가 안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최현
식(원자력공학 2018) 씨는 “실시간으
로 수업이 진행됐지만 원활하지 못했
다”며 “학교가 교강사에게 실시간 비
대면 수업 진행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
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차라
리 실시간 수업 대신 강의의 업로드
형식으로 진행하고 클래스를 활용했
다면 혼선 없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
는 아쉬움이 든다”고 덧붙였다.

실기·실습·실험·설계수업 등 비대면
으로 진행하기 힘든 수업에서는 교수
와 학생 간 소통 문제가 지적됐다.

남효주(미술학부 조소전공 2018) 씨는
“지금은 교수님이 ppt자료에 음성 녹
음을 첨부한 강의 자료로 이론수업을
진행한다”며 “비대면 수업이 계속 진행
된다면 학생들이 교수님께 작품 스케
치를 보내고 교수님이 피드백을 주시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 공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기 수업을 비대면으
로 진행하다보니 수업 집중도나 긴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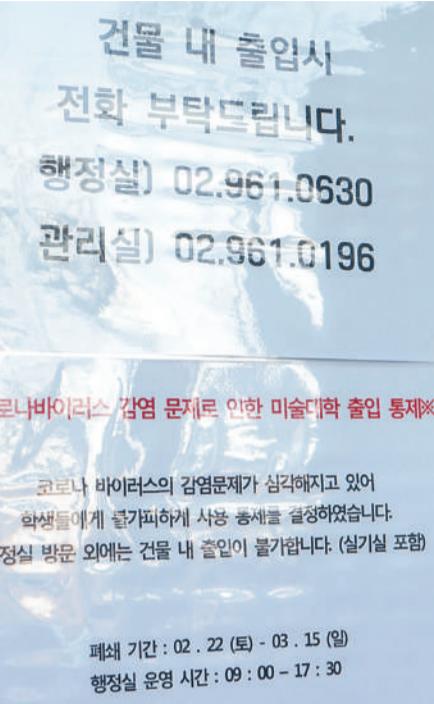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출입이 전면 통제돼 미술대학도 폐쇄된 상태다.

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비대면
수업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미술대학 소속 B씨는 “교수님께서
수업에 카카오톡 채팅을 활용한다고
말했지만 아직 채팅방에서 진행된 것
은 없다”면서 “실기실을 사용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실기 과목을 어떻게 진
행할지 전혀 모르겠고 수업 준비 단계
에만 머물러 있는 느낌이다”라고 말했
다. 이에 “주변에서 휴학을 권한다”면
서도 “아무런 준비가 돼있지 않은 상
황에서 갑작스럽게 휴학하기도 현실
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중간
시험과 기말시험 등 시험 평가 방식에
서도 정확한 안내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체육 실기수업을 수강하는 체육대
학 소속 C씨는 “현재는 영상을 통해
경기 규칙을 숙지하고 있다”며 “하지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출입이 전면 통제돼 미술대학도 폐쇄된 상태다.

만 실기수업은 직접 해보면서 즉각적
인 피드백이 필요한데 비대면으로 진
행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하다”
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 수업이 연장
돼 실기가 불가능할 상황에 대한 대책
에 대해서는 공지 받은 바 없어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실습이 필요한 수업도 마찬가지였
다. 박진주(한의예 2018) 씨는 “현재는
비대면으로 이론수업을 진행하고 있
다”며 “교수님께서 금요일이나 주말을
이용해 실습 보강을 진행할 것이라 말
하셨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 수업
2주 연장이 결정된 지금 추가 공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씨는 “비
대면 수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감
수하고 있지만 현 상황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



(사진 = 장보경 기자)

유로 등교를 감행한 경우도 있다. 실험
실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생명과학대
학 소속 D씨는 “지난 16일부터 학교로
등교해 실험을 진행 중이다”며 “교수
님도 걱정이 많으시지만 실험을 진행
해야만 하는 수업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졸업논문을
작성하는 분들은 실험을 해야 논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등교한다”고 덧붙
였다.

미비한 원격 수업 플랫폼은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며 혼선을 빚은 원인 중
하나였다. 김경민 학사지원팀 팀장은
“예전에 없던 온라인 강의가 결정되
다보니 급하게 시스코 웹엑스와 구글
클래스룸을 준비했다”며 “생소한 것
이다 보니 학생과 교강사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것 같
다”고 밝혔다.

우리학교는 실기·실습·실험·설계수
업 강좌에 대해 기존 학사일정을 유지
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 바로
대면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부
족한 수업시수에 대해서는 필요시 토
요일에 보강하되, 각 단과대학별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자율운영 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면 수업 신규 플랫폼인
'이캠퍼스(e-campus)'를 기준 계획
보다 앞당겨 이용을 시작하기로 결정
했다. 이캠퍼스는 클래스와 유사하나
부가적 기능이 추가된 형태다. 이캠퍼
스에는 실시간 화상강의시스템인 줌
(Zoom)이 탑재돼 실시간 강의를 지원
하지 않았던 클래스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수업 후 온라인을 통한 추가토론
과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아울러 클라
스에서는 완전히 구현되지 않았던 모
바일 학습 환경과는 다르게 이캠퍼스
는 모바일 학습에 최적화한 환경이 구
축돼있다. 또, 클래스보다 세부적인
온라인 학습 진도체크와 출결 조회 및
관리가 가능하다.

문제로 지적돼왔던 클래스의 서버
용량을 고려해 이캠퍼스는 외부 클라
우드와 회선을 사용해 2천명이 동시에
접속 가능하다. 이캠퍼스는 30일부터
이용 가능하며 시스코 웹엑스와 구글
클래스룸 역시 계속 이용 가능하다.

학사지원팀 김경민 팀장은 “학교에
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지만 인
력 문제 등의 한계로 더 좋은 서비스
를 제공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있
다”면서도 “이해와 배려를 통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잃어버린 봄… 코로나19가 앗아간 새내기들의 낭만

한진석 기자 1_jinseok@knu.ac.kr

“첫 학기를 맞이해 옷도 마련하고,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렜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성지은(간호학 2020) 씨는 학내 커뮤
니티 및 선배들의 조언에 따라 여러 행
사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
만 잇따른 코로나19 확산에 새내기들
을 위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면서
어쩔 수 없이 기대를 접어야 했다.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해 새
내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은 매년 새로
운 감동과 축하의 자리가 되어 왔다. 특히
벚꽃 아래 펼쳐지는 우리 대학의
환영 행사는 새내기들의 자랑거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
기화되면서, 신입생과 선배들이 처음
마주하는 자리인 단과대 ‘새내기 배움
터’는 물론, 입학식 역시 취소된 상태
다. 만우절마다 교복을 입고 봄을 즐기
던 신입생들의 모습도 올해엔 보기 어
렵게 됐다.



개강 일정에 맞추어 미리 기숙사에
입사하거나 자취방을 구한 신입생들
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성 씨는 “처음
공지된 개강일인 3월 13일에 맞추어
학내 기숙사에 입사를 마쳤으나, 온라
인 강의 기간이 연장되면서 집으로 돌
아가야 할지 고민이 됐다”며 “모든 학
생의 입장은 최대한 고려하는 학교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학생들과 빠르게 공유해주길 희망한
다”고 말했다.

학내 시설 이용이 대부분 제한되면

서,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연습실과 자
업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학내
구성원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의 신
입생 게시판에는 저렴한 연습실을 구
하는 글도 올라왔다. 박재호(기악학
2020) 씨는 “대학 내 공간에서 자유롭
게 악기를 연습하고 싶었는데 아직까
진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없었다”며 “코
로나19 관련 상황이 빨리 진정되서 선
배, 동기들의 연주를 듣는 시간이 왔으
면 좋겠다”고 전했다.

온라인 강의로 첫 학기를 맞이한 신

입생들은 훌로 집에서 수업을 듣는 방
식이 낯설기만 하다. 교수님이나 선배
들에게 직접 조언을 들거나 동기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소통할 곳도 없다.

안기영(한의예 2020) 씨는 “각 과목
별로 수강하는 방식과 출석하는 방식
이 달라 혼란을 겪는 친구들이 많았
다”면서 “교수님과 원활하게 소통하
며 수업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온라인
강의의 한계 때문에 쉽지 않다”며 온
라인 강의를 접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전했다.

기존 학생들과 대학 역시 새내기들
을 대면하지 못해 아쉬운 것은 마찬가
지다. 신입생 관련 행사를 준비해 온
학생들은 당초 계획을 대폭 수정하고,
비대면 상황에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
는 방식을 고안하고 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에서는 신입생
들에게 배포할 책자를 만들어 동아리
와 학교 생활, 주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책자 제작을 담당
한 기획정책국의 차은빈(사학 2019) 씨

는 “신입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해 가
질 수 있는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새내기 책자를 제작하게 되었다”
면서 “상황이 진정되어 대면으로 정보
를 전달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자가 신입
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책
자 제작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국제캠
퍼스 총학생회에서는 신입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수강신청 요령, 기숙
사내 시설 이용 요령 등을 영상으로 제
작해 배포 중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학
교内外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입생을 환영하는 행사가 언제 어떤
형태로 다시 계획될지는 모두 미정인
상태다. 학생지원센터의 송기휴 행정
과장은 “입학식과 신입생 환영 행사
가 취소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새내기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사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최대한 그 취지를 살리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자치단체
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위기

“공익을 위해 수익 창출은 0원”, 코로나 맵 제작자 이동훈

누적 조회 수 4,000만 회 육박

지자체 통계로 동선 표시

공포로 인한 2차 피해 막아야

김창호 기자 k.c_hoxx@khu.ac.kr

“끝까지 운영하겠다는 다짐에는 변함이 없어요.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국제캠퍼스 산업경영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동훈(산업경영공학 2014) 씨는 지난 1월 30일 ‘코로나 맵’의 배포를 시작했다. 당시 이 씨는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맵의 제작 계기와 운영 방식 등을 얘기했다. 또 “많은 관심을 받아 열렬히”는 소회도 밝혔다.

이후 약 2달이 지난 지금 어느덧 ‘코로나 맵’은 누적 조회 수 4,000만 회, 하루 평균 조회 수 100만 회에 육박하는 서비스로 발돋움했다. 제작자인 이 씨는 청와대에서 진행하는 업무보고와 각종 인터뷰, 방송에도 출연하며 ‘코로나 맵’ 개발자로서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초창기와 비교하면 ‘코로나 맵’의 기능과 운영방식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운영체제가 바뀐 것은 가장 큰 변화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급증으로 인해 혼자 운영을 이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찰나, 대학생 연합동아리 ‘SOPT’에서 20명의 자원자가 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나서준 것이다. 이 씨는 “따로 임금을 드리지 않는데도 불



구하고 각자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 도와주어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정보 취합 및 업데이트 방식도 바뀌었다. 이 씨는 “초기엔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정보를 바탕으로 했지만 지자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이후로 질본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현재는 각 지자체의 확진자 통계를 매일 비교한 이후에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확진자 이동 경로를 파악해 좌표를 설정하는 방식을 이용 중”이라고 말했다. 또 체계적인 정보 업데이트 시스템 구축에도 성공했다. 초기 한 명의 이동 경로를 업데이트하는 데 약 10분이 걸렸던 것을 현재는 30초가량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대구의 경우 지자체에서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를 따로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확진자의 수가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운영에 예외를 두고 있다.

확진자가 다녀간 지 9일이 지난 정보는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씨는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는 절대 방문하면 안 되겠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확진자가 다녀갔다 해도 철저한 소독과 방역을 거치고 이를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안전하다”며 “정보 삭제 조치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가 ‘코로나 맵’을 통해 얻는 수익은 0 원이다. 그는 “당초 공익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일이기에 앞으로도 수익 창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또 “국내외에서 ‘코로나 맵’ 운영을 통한 경험과 기반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아낌없이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며 공익 실현의 의지를 밝혔다.

이 씨는 많은 매체와의 취재, 방송이나 활동을 통해 받은 출연료를 ‘코로나19 해결’을 위해 전액 기부한 상태이다. 그는 “여러 기업에서 투자 제의나 스카우트 제의 등이 들어오지만 모두 거절하고 있다”며 “수익은 없어도 ‘코로나 맵’을 응원해주는 분들을 원동력 삼아 전력을 다해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많은 선언을 거쳤음에도 우려가 되는 지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바로 개발자 자신의 건강과 정보 오류에 관한 문제였다.

이 씨는 “초기에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압박에 밤잠도 자주 설치고 건강도 나빠졌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신경을 쓴다 보니 피로감도 자주 느꼈다. 다행히 이 씨를 돋겼다고 연락을 준 자원자들이 있었고, 이제는 하루에 두 번 업데이트 주기를 정해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려 노력 중이다.

‘정보 전달의 오류’는 이 씨가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다. 지자체에서 이미 공지한 바 있는 정보를 재수정하는 경우 ‘코로나 맵’이 의도치 않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갔다. 이 씨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의 발생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오류가 있으면 빠르게 수정하고, 매일이 오면 즉각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응원해 준 모든 이들에 감사 를 표하며 “‘코로나 맵’이 널리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처음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을 여기저기 공유해 준 경희대 학우들 덕분”이라며 “확진자가 0명이 될 때까지 사이트 운영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지금, 여러 기관, 지자체 등 많은 사람들이 각자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안함 속에서도 다음과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냈으면 좋겠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자가 체험한 비대면 2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강의에 접속하세요

3월 16일, 오전 일찌부터 휴대전화는 요란스럽게 짧은 진동을 단속적으로 되풀이했다. 메신저를 확인하니 친구들은 오랫동안 조용하던 과 동기들의 단체 채팅방이었다. 벌써 소위 ‘화석’ 소리를 듣는 학번이 돼 이제는 조금씩 학교를 떠날 채비를 해 나가는 중인 그들이 잠깐이나마 새내기 때로 돌아가 기라도 한 듯 떠들썩해진 이유는 바로 비대면 강의였다. 개강은 했지만 강의 실은 비어있는 기묘한 3월이었다. 모든 수업을 인터넷으로 듣게 된 상황이나 입학이 언제였느냐는 상관없이 낯설기는 마찬가지다. 수강 시스템 사용방법을 묻고 답하고, 자신이 듣는 수업에서 일어난 해프닝과 어색해하는 교수님 모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에서는 묘한 들뜸마저 느껴졌다.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들이 마찬가지 상황인 만큼 인터넷에는 비대면 강의와 관련된 황당함과 웃음을 자아내는 온갖 사례들이 쏟아졌다

다. 마치 온 나라의 대학생들이 같은 학교 학생이 된 듯한 모습이었다. 방 안에 앉아 난생 처음 사용해보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접속하고 사용방법을 파악하느라 잠시 심란하던 와중에 들려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나만 헤매는 좋은 아님 모양이다’라는 소소하나 마유쾌한 공감을 선물했다.

같은 플랫폼을 사용해도 수업마다 출석이나 과제 제출 방법이 제각각이라 공지 메일을 놓치거나 무시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비대면 강의 계획이 다시 연장된 만큼, 아직이라면 앞으로 한동안은 메일 도착을 알리는 푸시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 설정을 바꿔두는 것도 좋을 듯하다.

출입을 삼가주세요

학보사 기자들은 보통 남들보다 조금 빠른 개강을 맞는다. 개강일에 맞춰 발행하는 개강호 제작을 위해서다. 그러나 학교의 개강 연기, 2주간의 비대면 방식 강의 진행 결정에 따라 독자들을 기다리기 위해 우리신문의 개강호 역시 두 차례 발행 계획이 연기됐다.

학생들이 캠퍼스로 돌아올 날은 또 한 번 미뤄졌지만 우리신문은 개강호 발행을 결정했다. 기자들은 여전히 원한 낮익은 일상의 귀환을 기다리며 그 작은 조각이나마 제 자리에 돌려놓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다.

이번에도 보통보다 조금 일찍 돌아온 캠퍼스는 작년 이맘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대부분 건물은 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서관과 청운관 입구에는 열 감지기가 설치돼 있고 봄에 들뜬 학생들이 자리를 깔고 웃고 먹고 노래 부르던 잔디밭은 내려앉은 햇살만 가득하다. 배달 오토바이는 정문을 넘지 못하고 꽃 사진을 찍던 노부부는 ‘외부인은 출입을 삼가달라’는 당부에 걸음을 돌렸다.

당신과 나의 거리

개강호 제작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선 날이었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에 따르느라 오래 간만의 외출이었다. 평소처럼 버스를 이용하면 약속시간을 맞출 수 없을 것

같아 마침 길가에 서 있던 택시 문을 열었다. 차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사는 손사래를 치며 다가왔다. 손으로 입

가를 가리키는 그의 모습을 보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생각이 났다. 순간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솟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온 길을 달려 돌아갔다.

출석 댓글과 채팅창, 강의 자료와 이메일을 통해 만나는 교수와 학생들, 비어버린 캠퍼스, 공공장소에서는 빼짐없이 마스크를 쓴 사람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만들어낸 풍경이다. 이번 코로나 대유행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인류가 살아가는 환경,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와 고도로 연결된 세계가 바이러스의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실감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것은 비단 인간의 건강만이 아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조건인 상호간의 신뢰를 공격하고 있다.

편견에 사로잡혀 어제까지 내 옆에서 살아가던 타인을 바이러스로 몰아붙이며 유무형의 공격을 가하거나 근시안적인 이기심과 안일함에 갇혀 방역 체계에 구멍

을 내는 행동이 사회적 신뢰를 흔들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우리에게 물리적 거리를 넓힐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방역을 위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다.

당신과 나는 어깨를 맞대고 함께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믿음이다. 우리의 낮익은 일상, 웃고, 화내고, 싸우고, 서로 도우며 부대끼고 살아가는 일상을 되찾으려면 지금은 마음을 합쳐 서로 멀어져야 한다는 믿음이다.

이 지면 위에 대학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말을 제법 여러 번 되풀이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에야 대학은 단순한 건물의 모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느낀다.

아직은 빙칸이 더 많은, 베장이 질러진 캠퍼스에 조금 먼저 도착해 여러분을 기다리며 안부를 묻는다. 한 분도 빼짐없이 활짝 열린 문을 넘어 이곳에 모일 날을 고대한다.

“지난 결과는 또 다른 전염병 이길 전략”

교수칼럼

김우식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이제 인류

는 눈부신 경제발달과 인공 지능, 과학 발전 등으로 인류를 괴롭히던 기아, 역병, 전쟁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과제인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으므로, 인류는 신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언급했다. 그러나 시편 저자가 이러한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라는 말씀을 전한 것처럼 신은 새로운 전염병으로 이 땅의 인류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몇 년마다 전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을 접하고 있다. 사스(2003년), 신종 플루(2009년), 메르스(2015년), 그리고 올해는 COVID-19 바이러스다. 이 중에서 서사스, 메르스, COVID-19는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2002년 11월 중국 광동 지역을 중심으로 발병이 시작되어 수개월 만에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전염병이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해 각종 매체는 그 이유를 김치에서 찾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라크 전쟁이 사스의 확

산을 막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2003년 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2002년 911 테러가 있었기에 이라크 전쟁을 기점으로 전 세계는 일시적인 교류 중단이 있었다. 일시적인 교류 중단이 사스의 퍼짐을 막는 데 일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5월 중순부터는 2달 넘게 모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MERS) 혹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은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수준과 보건의료체계의 다양한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다행히 감염원 유입이 중동이라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고, 적절한 치료와 통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2020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 창궐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미 COVID-19의 국내 유입이나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차단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전염병들을 보면서 우리가 방역을 잘 했기보다는 단지 운이 좋았다는 냉철한 판단을 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이번 전염병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또 다른 전염병이 왔을 때 이를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때가 있다. 이 때 왜 환자가 나빠졌는지, 무엇을 했으면 환자를 살릴 수 있었는지를 되새겨 보면 부족했던



것을 깨닫고는 한다. 이후 동일한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입원하면 2번째 환자는 보다 더 치료가 잘 되어 무사히 퇴원하게 된다. 현재까지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사망률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하고, 좋은 점은 정책에 반영하여 또 다른 전염병이 왔을 때에 더 나은 성과를

이를 수 있도록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실패한 것이 있으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교 교정에는 목련이 피었고, 곧 벚꽃이 필 것 같다. 학교 주변에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초, 중, 고 개학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 대학생들도 사이버 강의 보다는 학교에 모이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간절히 부탁드린는데 전염병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 있으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만났으면 한다. 나는

건강해, 나는 젊어, 이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이 새로운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다. 나에게는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는 행동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노약자분들과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가장 큰 위협에 몰아넣을 수 있다. 그 환자가 우리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들, 가족들이 될 수 있다.

의대 교수 특히 임상 교수는 진료를 하기 위해 매일 병원에 출근하고 있다. 진료실에서 환자 진료가 시작되면 밖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도 모르고, 봄이 왔는지, 여름이 왔는지를 모르고 지내는 때가 많다. 하지만 요즘에는 진료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걱정하게 된다. 임상 의사가 진료에만 열중할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한다. 지금도 전염병과 싸우는 모든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전염병에 승리할 것을 예전한다.

참여마당

이경은
국어국문학 2018

코로나가 만든 우울, 함께 극복하다

코로나19가 조금씩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은 2월 즈음이었다. 겨우내 서울에 있었던 나는 경상남도에 있는 본가에 잠깐 내려가리라 마음먹었지만 그 마음은 그대로 반려되고 말았다. 서울에서 확진자가 하나 둘 등장하며 오히려 서울에 거주하는 내가 ‘위험분자’가 된 것이다. 가족, 친구들과 연락에서 ‘조심해’라는 말은 어느새 안부 인사가 되었고 그들은 꾸준히 나의 상태를 걱정해 주었다. 그러나 몇 주 지나지 않아 경북 지역에서 그 일이 발생했다. 겨울 방학으로 모두 경상남도 본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나 빼고 모두 그곳에 있었다.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모두 조심하고 연락을 돌리고 각자의 곳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그들의 소식을 온라인으로 나마접할 수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잘 어울릴 정도로 경남에 있는 친구들과의 사회적 교류는 온라인으로 끊어지지 않았다. 친구들이 올려주는 부산, 창원 시내 확진자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단체 카톡 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에 올라오기 전 자주 놀러 간 동네, 고등학교 근처에 있었던 아파트 이름은 모두 확진자 경로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고 친구들과 마음 높여 걱정하였다. 태어난 연도가 ‘9’로 끝나는 우리들은 마스크 5부제에 해당하는 날 서로 줄 서서 얻은 마스크를 ‘인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경상남도에서 ‘마스크 구하기’는 그 누구 하나 영웅답이 아닐 정도로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전해졌다. 경남은 서울만큼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하지 않아 평소 마스크를 모아놓은 집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들에게는 신문에 보도될 만큼 거창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친구들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는 건물이 없었고 마스크를 특정 단체에 기부하기에는 가족들이 쓸 마스크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코로나를 예방하는데 노력한 일상의 영웅들이 라 할 수 있다. ‘재난을 극복하는 최고의 수단은 결국 공동체의 힘이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윤동력을 갖게 된 것은 당연히 서로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장기전이 될 거라 예측한다. 우리에게 있어 이 싸움은 지치고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경상남도 지역에는 벚꽃이 벌써 만개했다. 카카오톡 방에는 각자 집에서 찍은 벚꽃 사진이 하나 둘 올라오고 있다. ‘그래도 봄이잖아’라는 말과 함께. 우울과 무기력에만 빠져 있지 말자.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과 동시에 공동체의 힘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아니,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이겨내야만 할 것이다.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도전 꿈에 도전하라!
당당한 자신감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학군사관(ROTC) 모집안내

2020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만 20 ~ 27세 이하인 남·여)
※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61기 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학군 62기 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20년 3월 16일 ~ 4월 10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학군사관 모집안내]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 4. 25.(토), 합격자 발표 : 5. 15.(금)
 - 2차 면접평가 : 5. 25(월) ~ 6. 12.(금),
합격자 발표 : 6. 26.(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9. 4.(금)

학군사관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ROTC)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문의처 지원대학 학군단
서울 : 02-961-0085-6
국제 : 031-201-3271-4



인터뷰



“자랑스러운 과거·담대한 미래 양 날개로...”

한군태 신임 총장 인터뷰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박창원 기자 macpark342@khu.ac.kr

2019년은 총장 선임 과정에 경희 구성원이 참여한 첫 해로 남게 됐다. 지난해 12월 26일 제16대 경희대학교 한군태 신임 총장이 선임됐다. 구성원 모두가 숨 가쁘게 달려온 결과다.

‘최초’라는 타이틀에서 오는 무게감,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적지 않은 고비를 모두 지켜본 이유에서인지 한총장은 “만족이나 기쁨보다 동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쪽에는 70년이라는 묵직한 역사가,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대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학교 상황이 그의 두 어깨를 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총장은 “새가 양 날개로 날듯, 경희의 자랑스러운 과거와 담대한 미래 비전을 날개 삼아 높이 솟아 오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 “임기 동안 재정 확충과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해 2049년 맞이할 경희 100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장은 “기후위기와 환경파괴, 질병, 빈곤, 불평등의 지구적 난제가 인류 사회를 위협하는 한편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이 예측 불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불확실한 미래 환경을 짚었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정보통신과 지식체계의 빠른 변화, 생명과학, 인공지능, 우주 과학과 같은 분야에서의 도전이 과거와 사뭇 다른 변화의 기류를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총장은 ‘불확실한 미래’가 오히려 우리대학에는 기회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보는 듯하다. 그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우리의 미래는 녹록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위기는 곧 기회”

라는 말처럼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우리대학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는 포부도 꺼내들었다.

한군태 신임 총장은 학교 안과 밖을 두루 경험한 부분이 강점으로 꼽힌다.

한군태 신임 총장은 정경대학 신문방송학과(현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한 동문 교수로 30년 이상 재직하면서 신문방송국장, 언론정보대학원 원장, 정경대학 학장, 대외협력부총장, 서울부총장 등 대학의 주요 언론, 행정, 학술분야를 두루 거쳐왔다. 또한 한국언론학회 회장, 한국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각종 언론유관단체 위원장을 수행했다. 이에 학교 안과 밖을 두루 경험한 부분이 강점으로 꼽힌다. 그 과정이 구성원 혹은 해당 조직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요했다는 점도 한 총장의 대학 운영에 기본적인 원리를 제공하는 요인이다.

열린 소통은 위기 돌파의 원동력 구성원과 직접 만나겠다

“커뮤니케이션 전공자이기도 하지만 대내외 조직을 이끌며 리더의 역할이나 책임과 관련해 소통과 공감의 필요성을 실감했다”는 한 총장은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협력은 대학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필수 조건”이라고 못 박는다.

구성원과의 공감은 작은 생활의 영역에서 대학의 비전이라는 보다 묵직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한 총장 역시 “구성원 모두가 대학의 목표와 전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열린 소통의 가능성을 높이고 그 방법 역시 혁신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열린 소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린 리더십이 전제 되어야 한다”는 한

총장은 소통의 방법 역시 핫라인, 스kip레벨 미팅(Skip-level meeting), 총장 오피스 아워 등 중간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구성원과의 접점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어가는 방식을 구체적인 실현 계획으로 거론했다.

우리대학의 해묵은 사안에 대해서도 한 총장은 소통에 기반한 해결의 실마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비정규직 및 강사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정규직 전환 사례를 들며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을 적극 경청할 계획”이라며 “대학노동위원회”를 구성해 대학과 교수, 직원,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 대표들과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사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열악했던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강사법이 2019학년도 2학기부터 본격 시행되었는데 제도의 첫 시행이다 보니 향후 꾸준히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강사로 채용된 분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그분들의 입장장을 듣고, 학교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가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구성원의 각오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한 총장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총장을 비롯한 교수, 직원, 학생 등 모든 대학 구성원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총장으로서 열린 리더십과 소통을 약속하며 구성원의 각오와 열의를 주문한 것이다.

유연한 소통과 구성원의 자발적인 동참을 토대로 한 총장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 안정성과 위상 제고’다. 그는 “학문적 탁월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이 탄탄해야 한다”며 “위상 제고는 결국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그 두 개 요인의 선

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수한 인력을 뽑아야 연구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고, 그 결과는 산단 활성화, 전입금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한 총장은 “확대된 전입금은 다시 내부 연구자의 연구 활동에 지원됨으로써 전체적인 대학의 연구 풍토가 진작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선순환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탄탄한 재정 무엇보다 중요 지속적인 위상 제고도 과제

위상 제고에 대해선 ▲연구 수월성 제고 ▲교육 프로그램 개편 ▲사회진출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 라고 말했다. 특히 연구 수월성 제고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친환경 에너지, 차세대 통신, 생명공학 등 미래산업 기반 분야에서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력 양성에도 힘쓸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이야기했다.

또 인문학과 미래 과학이 결합된 융복합 교양교육 신설, 융합전공 교육과 정 확대 등 시대 요구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창업 관련 지원제도 확대, 창업 친화적 학사 제도 개편, 사회 수요 예측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 제도 운영 등 학생의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다.

재정 안정성에 대해선 “대학 재정 구조의 선진화를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수입 및 지출구조 개선 ▲미래 명문 대학 재정구조 정립 ▲법인 및 산하기관과의 연계 협력 사업 확대를 이야기했다.

수입 및 지출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수입 구조 다각화’와 ‘행정 효율성 극

대화’를 들며 “등록금 이외의 수입 창구를 마련하고 복잡한 행정절차와 중복 업무를 간소화 해 책임소재와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라며 “특히 행정 효율성 극대화는 행정절차 간소화, 중복 부서 통폐합, 임시기구 최소화 등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기존의 자율 운영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총장은 “연구기획팀 신설 등 적극적인 연구비 수주 활동을 통해 산학협력단 전입금을 확충할 것”이라며 “한방 바이오 자산 등의 지적 자산 사업화,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WE+ Project), 법인 재정사업본부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학교기업 설립 등 법인과 여타 산하기관과의 연계 협력 사업 방안을 밝혔다. 학교기업 설립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경희 브랜드 마케팅을 염두에 둔 계획이다.

이밖에도 재정구조 정립에 대해 기부금 선순환 생태계 조성, 그린캠퍼스 구축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화 등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끝으로 한 총장은 “이 같은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 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성원의 기강 확립과 사기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희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우리 모두가 함께 일구고 가꾸어가는 경희 공동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0년 경희 역사상 최초로 구성원이 참여한 총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총장으로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 드린다”며 “총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했다.